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보도자료

| 본부장 윤후덕·인태연 | 수석부본부장 민병덕·박용갑

보도일시	2025. 5. 29. (목)	배포일시	즉시 배포
사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원국 02-6788-3631	문의	윤후덕의원실 강지영 비서관 02-6788-6904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대전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지역화폐 예산 확대, 빈 점포 활용 제고, 시장매니저 제도 개선 등 논의
- 박용갑 “얼어붙은 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 다할 것”
- 윤후덕 “대한민국 정상화·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박용갑 수석부본부장)이 27일 대전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대전 전통시장 상인, 은행동 상인을 각각 만나 대전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은 “대전 전통시장 상인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윤후덕 공동본부장님과 박용갑 수석부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전통시장 빈 점포에 청년 상인 창업 시 저금리 대출 지원, 경로당 조성을 통한 공간 활용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 전통시장 상인들은 또 ▲소상공인 육아휴직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형평성 제고,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 추진 시 부실 화재감지기 등 선정 방지 위한 상인회 의견 반영, ▲전통시장 중장기 역량 강화 위한 시장매니저 제도 개선, ▲상인회 운영비 지원 확대, ▲부사전통시장 한화이글스 구장 인근 전기·가스·수도 불편 해소를 통한 먹거리타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은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범위 유연화, ▲소상공인 연체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라드 한화이글스 경기 생중계 통한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공동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직속 비상 경제 대응 TF를 만들고,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9조 원 중 4조 원에 대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을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수석부분부장은 “대전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보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내수 경제와 골목상권 소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말씀하신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뽕뽕 얼어붙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윤후덕 공동본부장과 박용갑 수석부분부장,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을 비롯해 중앙로지하상가, 신중앙시장, 중리전통시장, 한민시장, 신도림지락시장, 송촌전통시장, 중앙메가프라자, 전통중앙도매상가, 산성뿌리전통시장, 문창전통시장, 범동시장, 용운시장, 은행동 상점가 관계자가 참석했다. /끝/

※ 첨부자료 : 간담회 사진



